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설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43호 현대불교
2009년 8월 5일(음 6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비워지면 스스로 채워지는 겁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지요?

☞ 요즘에는 예전보다 정신병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마음이 허하니깐 다른 영령들에게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마음공부를 통해 이런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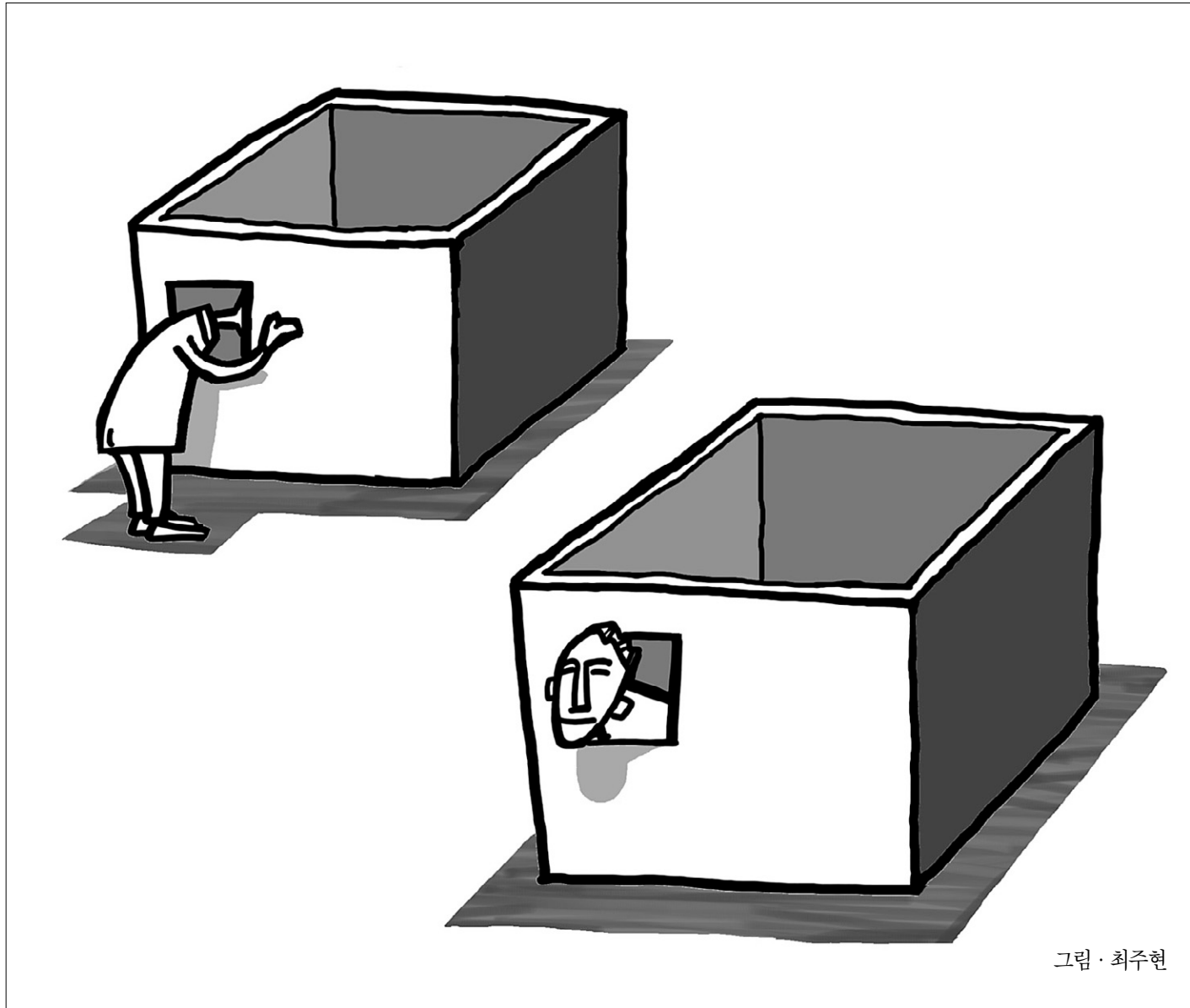
☞ 우리에게 병고가 닥치면 그건 누가 해결을 하나요? 의학적으로는 30%밖에 말릴 수가 없어요. 70%는 누가 어떻게 총당을 하죠? 자신들이 총당해야 돼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병 환자들을 그냥 목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찌고요. 하도 그냥 약을 먹이고 잠만 재워서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말입니다.

우리 절에도 어떠한 정신병이 있는 환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이 어떠한 그 걸 보느라고 더 난리를 쳐요. 더, 아주 그냥 때리기도 하고, 막 약을 쓰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를 막 때리고 하고 이런 짓들을 하거든요. 우리 스님들이 어떠한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겁니다. 외려 더 그런 걸 가졌어요. 영계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럴 때에 그걸 들로 보지 않아야만 되겠죠? 결손하고 항상 들로 보지 않고 불쌍히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그런다면, 항상 나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영가들도 그러다가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럴 때 울바로 끌고 나가셔야죠.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한 번 갔다 한 번 나오고 하는 데에 수없는 시간이 걸리는데, 삼차원에서 살지 못하고 저 하천세계에 떨어져서 수없는 나날을 보내다 다시 인간으로 올라오려면 얼마나 어려운 데 당신 그러느냐고, 당신과 나와 어찌 틀어놓느냐고 하고선 딱 정신차리게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내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므로 네 주장자가 없다면 너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네 주장자를 내가 빼앗아도 너는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화산이 이글이글하게 탄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동강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타지 않을까요? 다 타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한 불씨가 수만 개의 불타로 나가도 나간 사이가 없고, 또 그 불씨가 한데 합쳐도, 미쳤던 의식이 자체도 근본자리에 가면 그냥 녹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식이 어떠한 나무 동강이라고 보고, 불성 자리라면 그냥, 화산과 같은, 용광



로와 같은 한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동강이든지 쇠 동강이든지 어떤 거든지 들어가면 그냥 녹고 타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전회기하고 낱상고 이런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도리 밖엔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할...

☞ 스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고행을 많이 하

면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마음 도리를 알고 싶는데 살림하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하셨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마음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과거 그 사람이 무얼 했는지도 모르고, 현재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모두

연구할 수 있나? 그리고 답이 줄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디? 모두가 다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죠. 죄는 없다. 고(苦)도 없고, 모든 게 없으나 아미 고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겠지, 이러죠. 모르는 게 죄고 모르는 게 고다. 내가 생각할 땐 하나도 죄 불을 데도 없고, 인과응보라든가 그런 데 그 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더 잘 배우고 더 잘 알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나보다 못할 겁

니다. 난 어려서부터 안 해 본 게 없어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 해 봤을 테니까. 내가 잘나고 또 모든 상황이 아주 잘났더라면 어디 꼬임에 빠져서라도 이걸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연구하고 그러느라고 딴 사람하고 말할 사이도 없었던 말입니다. 여지가 없었죠. 무슨 생각할 여지가 어땠습니까. 말없이 말을 자꾸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열매에서 말할 새가 어디 있어요. 묵신하고도 말을 하고 그 묵신들이, 무정물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또는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주고 살고 공생 공용을 진짜로 넣어 준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느라고 말입니다. 근데 인간하고도 아주 그냥 가깝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고 먹고 이러면서.

그리고 묵신도 없는 게 아니죠. 인간 자신도 이게 자성신이거든요. 자신, 자성신. 이게 자성신인데 묵신이라고 없나? 묵신도 있다고요. 그래서 물도 신이 있어서 수호신이라고 그러죠. 용신이라고도 그러고, 수호신하고 용신하고 뭐가 다르냐? 수호신은 가만히 물이 흐르는 거, 동요하지 않는 그 물이 있는 것을 말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데 용신은 그 물에 생명이 있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생각을 내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생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용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래요. 바로 자성신이 용신이죠. 왜냐 하면 생각을 내지 않으면 무엇이 성사가 되지 않으니깐. 목석이니깐요.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생각을 누구나가 다 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생각 내는 데에 달려 있다. 악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좀더 선포로다 무겁게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또는 잠재의식 쪽으로 한번 생각 기울여 봐라. 그러면 너 나왔던, 전자에 내가 나오기 이전에 살던 그 세상으로 한번 맛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이게 그냥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애 정말이지 걸음을 걸으면서도 아픈 눈물을, 육신이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쓰러지면서도, 옆에서 지켜봐도 오직 그 하나만 생각하고 걸었다는 거. 여러분은 그 맛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도 지식 날고 살림하면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신다면 못할 게 하나 없어요.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조그맣게 풀

☞ 26면으로 계속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09년 8월 6일 목요일